

2024 최종합격 수기

■ 제목: 수석 합격생의 합격수기

■ 과목별 학습법 & 수강 강사

(1) 1차 시험 점수 : 평균 88.34

노동법I 88, 노동법II 96, 민법 96, 사회보험법 88, 경제학원론 73.74

저는 2023년 노무사단기 1차 프리패스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노동법은 김영 선생님, 민법은 김광수 선생님, 사회보험법은 이지영 선생님, 경제학원론은 신경수 선생님을 수강하였습니다.

(1) 2차 시험 점수

노동법(김에스터) 63.63 / 행정쟁송법 75.7 / 인사노무관리론(최중락) 60.35 / 노동경제학 60.31

노동법: 김에스터T, 63.63점

- 강의력, 교재, 모의고사 모두 매우 수험적합적이고 깔끔함
- 서브노트 2단 구성으로 한 켤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음
- 모의고사의 난도와 모범답안의 분량이 실제 시험과 매우 유사함
- 연습이 덜 된 B급 켤매까지 3기 핵서포 자료로 대비 가능
- 사담 거의 없고 디션이 정말 좋으셔서 집중이 잘 됨
- 0기부터 일일테스트, 방학 기간 스터디 구성 및 전화 상담 등 꼼꼼한 케어
- 노동법 박사 과정 중이셔서 강조하시는 주제에 대한 신뢰감 상승

개인적으로 노무사 수험을 위한 완벽한 육각형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터쌤 수업은 컴팩트한 느낌이 들어서 수강에 부담이 없지만, 실제 내용은 빠지는 켤매 없이 다 다루어 주시고 고득점 포인트도 다 떠먹여 주셔서 에스터쌤 수업만으로도 노동법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안을 쓸 때 법리는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논점의 정리와 사안에의 적용(포섭)은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번 시험에서 저는 에스더쌤 모범 답안과 거의 유사한 구성으로 답안을 작성했고(모답과 완전 일치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포섭 시 약간의 엇나간 포인트들이나 시간 부족으로 인한 2문 대폭 축약 기재 등이 있었음에도 63.6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사노무관리론 : 최종락T, 60.35점

- 매우 유려한 강의력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시킴
- 이력에서 오는 신뢰감
- 완성도 높고 깔끔한 교재 퀄리티
- 모의고사 모범답안 / 연습책 / 기본서 모두 결국 동일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추가되는 내용 많지 않고 반복효과 높음
- 모범답안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서론, 결론이 거의 없어서 좋음 (깔끔하게 상위개념만으로 시작)

중락쌤의 강의력은 모든 과목 통틀어 1위이실 것 같습니다. 동차반 시절 인사과목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중락쌤 강의 듣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기본서 문장 속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이해가 되니 암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 과목별 단권화 교재 및 공부 방법

1. 노동법

(1) 단권화 교재: 서브노트

단권화 방법은 일반적인 합격수기에 거의 다 나와있는 형광펜 작업, 두문자 기재, 모의고사 출제 표시, 중요 쟁점은 논점의 정리와 포섭 구조 포스트잇으로 정리, 인덱스 작업 정도 했습니다.

(2) 기수별 공부방법

1) GS0기 ~ 1기

- 매일 일일테스트 응시

에스더쌤이 유예생 이상은 풀답안 써보라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동차 분들도 버겁더라도 풀답안 연습 이때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포섭 실력을 미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쌤 블로그 댓글로 인증까지 꼭 빼놓지 않고 했어요.

- 이해되지 않는 (중요한) 판례는 원문 찾아보기

뒤로 갈수록 원문 찾아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여유 있을 때 원문 찾아보고 판례가 나온 배경, 함의하고 있는 시사점, 왜 이 판례가 중요한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추천합니다.

- A급 판례는 초반부터 암기 부담 가지기

저는 강박증이 있어서 조사까지 외워야 하는 사람인데 동차반 시절부터 판례 암기 시작한 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GS2기 ~ 3기

- 모의고사 무조건 응시 (오픈북 X, 시간 엄수) > 전과목 동일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등수에 집착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소위 모의고사에 나올 쟁점만 집어서 하는 공부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의고사에 집착했다는 것은 어떤 쟁점이 나와도 누구보다 모의고사를 잘 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모의고사 등수가 잘 나오면 성취감이 높아지고, 또 잘 나오지 않으면 자극제가 되어 다음주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암기와 포섭의 디테일 높이기

중요한 쟁점은 논점의 정리와 포섭의 구조까지 포스트잇에 정리하여 단권화했습니다. 일반론 암기는.. 앞서 적었듯 강박증이 있어 원문에 가깝게 통암기하려 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문자 역시 쌤이 따주신 것 외에 제가 직접 딴 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포섭의 구조는 에스더쌤이 강조하시는 깔때기 구조를 따랐고, 포섭 양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설문에 나와있는 내용 중 의미 없이 제시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 끌어다 쓰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노1 1-1 문(30점 배점) 포섭을 거의 3페이지 가까이 했습니다.

+ 강조하고 싶은 점

- 판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논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1기까지는 이해 되지 않는 중요 판례의 원문을 찾아보면서라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 논점의 정리, 법리 제시, 사안에의 적용(포섭) 모두 결국 깔때기 구조입니다. 깔때기 구조가 별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사안에서 A가 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 노무사 2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으려면 1차 시험 합격자여야 한다 > 1차 시험 합격자인지 여부는 1차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하에서 검토한다'와 같이 더 포괄적인 논의에서 세부적인 논의로 좁혀가는 논증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포섭 양은 (필요한 일반론을 잘 적시했던 가정 하에)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2. 행정쟁송법

(1) 단권화 교재: 사례집(주), 서브노트(부) / 대상적격 파트와 같이 판례 많은 부분은 기본서 보충 (결국 사례집을 메인으로 가장 많이 보되 서브, 기본서, 모고 다 봤네요.)

(2) 기수별 공부방법

1) GS0기 ~ 1기

- 일반론 암기 부담 가지기 (중요 쟁점은 초반부터 암기하세요. 암기하다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 1기 종강 이후 방학 때 복습 스터디 하기

- 모의고사 무조건 응시 (노동법과 동일)

- 암기와 포섭의 디테일 높이기 (노동법은 특A 쟁점들에 한해 포섭 구조를 반복 숙지하였다면, 행정은 노동법과 달리 사례집 문제들은 포섭 순서까지 외웠습니다.)

+ 강조하고 싶은 점

- 법전의 생활화, 법 조문의 중요성 깨닫기
- 배운 내용 안에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쟁점 찾기
- 목차만 보고도 전체 답안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논점의 정리 > 목차 > 사안의 적용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답안 구성)
- 핵심 쟁점 외 분량 조절하는 연습하기

3. 인사노무관리론

(1) 단권화 교재 : 기본서

(2) 기수별 공부방법

1) **GS 0기 ~ 1기**

- 이해 위주 공부

문장 구성이 왜 이렇게 되어있을까, 왜 이런 장점이 있을까 생각하며 공부하기, 인사는 법학과 달리 비교적 친숙한 단어들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기에 초장에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단어로 써도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인사가 안 외워질 수 있습니다.

- 개념 암기 가져가기

2) **GS 1기 방학**

- 통화스터디로 파워 암기

3) **GS 2기 ~ 3기**

- 모의고사 무조건 응시
- 통화스터디로 기본서 전체 암기 디테일 높이기

4. 노동경제학

(1) 단권화 교재 : 문제편 교재

(2) 공부방법

특별한 공부법은 없고, 중요한 건 책만 보지 말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그래프가 생각처럼 잘 안 그려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빠르게 그릴 수 있는지 체화할 수 있습니다. 노경이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서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프 강제로 그리는 스터디, 문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려 했습니다.

■ 기타

1. 도움이 된 스터디

참고) 저는 극P + 의지박약 + 민폐 끼치기 싫어함 콜라보로 스터디가 매우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안 맞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1) 노동법

1) 통화스터디 ★ (암기 디테일 쌓기, 모고 전 회독 스케줄 준수에 도움 / 서브노트, 모의고사 모두 진행)

2) 에스더T 방학 스터디

(2) 행정쟁송법

1) 사례집 통화스터디

범위 정하여 공부 후 랜덤으로 상대방 문제 골라주면 논점의 정리부터 포섭까지 구술 현출 / 일반론 암기 디테일 쌓기 주목적

2) 사례집 쓰기스터디 ★

범위 정하여 공부 후 스터디 시간 되면 랜덤으로 문제 정하여, 영상통화 상태로 시간 정해서 쓰기 현출 / 통화스터디 후 쓰기로 전환 / 일반론 요약 기재 可 / 논점의 정리와 포섭 체화 목적

(3) 인사노무관리론

1) 기본서 통화스터디 ★

기본서 범위 정해서 공부 후, 상대방이 주제 정해주면(eg. 스캔론 플랜) 그 주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구술 현출 / 암기 디테일 쌓기 목적

2) 연습책 풀이 스터디

정해진 범위 공부 후 카톡으로 서로 문제 내주고 타이핑해보는 스터디 / 목차 구성 및 연습책 공부 목적

(4) 노동경제학

1) 그래프 인증 스터디 ★

스터디 범위 그래프 모두 그리고 인증하는 스터디 / 강제성 부여 및 그래프 익숙해지기 목적

2) 50점 문제 풀이 스터디

스터디원이 돌아가면서 50점 문제 내고 각자 풀이 후 인증하는 스터디(풀답안X) / 타 강사 모의고사 및 교재 문제 풀이로 다른 경향의 문제도 접해보고자 함 + 노경 문제 풀이 공부시간 확보 목적

(5) 기타

1) 착석 인증 스터디 ★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 정해서 타임스탬프로 외부 착석 인증하는 스터디 / 강제 착석 목적

2) 스터디 플래너 인증 스터디

막바지에 자꾸 풀어지고 계획을 못 지켜서, 아침에 당일 공부계획 전송하고 각 항목 완료할 때 / 밥 먹으러 갈 때 / 다시 공부 시작할 때 / 공부 마칠 때 보고하는 1:1 스터디를 했습니다. 공부 마치고 계획표 달성 여부 공유했습니다.

2. 동차반 추천 (법학 한정)

저처럼 1차부터 진입한 분들은 첫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소중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차반 수강 시 바로 답안 작성법을 배우게 되어 빠르게 법학 답안에 익숙해질 수 있고, A급 쟁점들을 최대 한 동차반 때 많이 외워놓으면(물론 또 까먹는 건 당연하지만) GS 0기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저는 노동법, 행정의 경우 동차반 모의고사를 모두 응시했고 실제 시험에서도 공부한 문항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점수를 받아볼 수 있었기에 공부 방향 정립 + 자신감 획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동차반 수강하신다면 현실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두 과목 정도에 집중해서 점수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 마치며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수기를 적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누락된 내용도 많을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마음처럼 안 풀릴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합격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다면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